

(장려상) 창조적 여명

물리학과 강민석

원작

프랑켄슈타인

기획 의도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열지만, 동시에 윤리적, 철학적 질문을 제기하는 과정을 통해, 인간 본성과 기술의 진정한 의미를 성찰하고자 한다. 본 작품은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과 달리, 인간의 기억과 의식을 인공지능과 결합시켜 새로운 생명체를 창조하는 현대적 접근을 취한다. 빅터와 클라라의 공개 토론을 통해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고, 대중이 기술의 윤리적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든다. 몬스터는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기 위해 고민하며, 클라라와의 대화를 통해 변화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클라라는 인간의 의식을 디지털 형태로 전환하는 기술을 개발하며, 기술과 윤리 사이의 균형을 찾으려 노력한다. 비극적 결말과 희극적 결말이 공존하며 몬스터가 희망을 발견하고, 클라라는 기술의 윤리적 사용에 대한 새로운 결심을 다짐한다. 이를 통해 기술과 윤리의 균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간 본성과 기술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깊은 성찰을 유도한다. 스토리의 끝에서는 비극 속에서도 희망과 변화의 가능성을 제시하며, 기술이 인간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시놉시스

2045년, 인간과 기계가 혼합된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서 인류는 기술의 힘으로 죽음마저 극복하고자 하는 꿈을 키워간다. 이 시대의 중심에는 유명 과학자 빅터 프랑켄슈타인과 그의 전 연구 파트너이자 윤리학 교수인 클라라 베일이 있다. 이들은 사망한 사람의 기억과 의식을 인공 지능과 결합시켜 새로운 형태의 생명체를 창조하는 실험에 성공한다. 이 실험은 과학적, 윤리적 한계를 넘나들며, 창조된 생명체인 '몬스터'는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진다.

몬스터가 처음으로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인식한다. 자신이 인간과는 다른 존재임을 깨닫고 큰 충격과 혼란을 느낀다. 그러나 클라라와의 대화를 통해 몬스터는 변화의 시작을 맞이한다. 클라라는 몬스터의 인간적인 면모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그가 인간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한편, 빅터와 클라라는 공개 토론을 통해 과학 기술의 윤리적 문제에 대해 대중에게 깊은 생각을 불러 일으킨다.

몬스터는 빅터에게 자신과 같은 존재를 창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몬스터가 가족과 소속감을 갖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하지만 빅터는 이 요구를 거절하고, 몬스터의 내면에 있던 고통이 극에 달하자 몬스터는 복수의 길로 접어든다. 그의 복수심은 빅터의 고향인 격리된 섬에서의 해악으로 이어졌다. 이 섬은 빅터에게는 어린 시절의 추억이 깊게 뿌리박힌 곳이었지만, 몬스터에게는 복수의 대상이자 자신의 고통을 이해할 수 없는 세상에 대한 반항의 장소였다. 몬스터는 빅터의 거부로 인해 더욱 깊어진 자신의 외로움과 분노를 이 섬에서의 행동으로 표출했다. 같은 시기에 새로운 생명체를 만드는 클라라의 비밀 연구가 드러나면서 사태는 더욱 복잡해진다.

한편, 클라라의 비밀 연구는 빅터의 창조물과는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켰다. 클라라는 인간의 의식

을 디지털 형태로 전환하여 무한한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다. 이 기술은 인간의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한 지식의 축적을 가능하게 할 수 있었다.

결국, 섬에서 벌어진 몬스터와 빅터의 마지막 대결은 두 사람 모두에게 비극적인 결말을 가져온다. 몬스터는 자신이 바라던 존재의 의미를 찾지 못한 채 홀로 남겨지고, 큰 상처를 입은 빅터는 기술의 한계와 인간의 오만함에 대한 교훈을 남기며 사망한다. 이러한 비극적인 결말을 목격한 클라라는 기술과 윤리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고, 본인과 빅터의 연구를 기반으로 인류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기술을 이끌겠다는 새로운 결심을 한다.

시간이 더 흐르고 클라라의 연구로 인해 탄생한 새로운 생명체는 몬스터가 원하던 '동종'은 아니었지만, 몬스터는 이 존재와의 교류를 통해 변화할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한다. 이 새로운 생명체는 몬스터에게 인간과는 다른 새로운 관계와 소통의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몬스터는 자신이 외롭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클라라는 이 모든 사건을 통해 기술과 윤리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는다. 그녀는 빅터의 연구를 뛰어넘어 인류에게 진정으로 유익하고 책임감 있는 방향으로 기술을 이끌겠다는 새로운 결심을 한다. 이야기는 몬스터, 클라라, 그리고 새로운 생명체가 함께 있는 장면으로 마무리된다. 이 존재와의 교류를 통해 몬스터는 자신이 원하던 동종은 아니지만, 외롭지 않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스토리

2045년, 인간과 기계가 혼합된 시대가 열리며, 유명 과학자 빅터 프랑켄슈타인과 윤리학 교수 클라라 베일은 사망한 사람의 기억과 의식을 인공 지능과 결합시켜 새로운 형태의 생명체를 창조하는 실험에 성공한다. 이 생명체인 '몬스터'는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에 대해 큰 충격과 혼란을 느끼지만, 클라라와의 대화를 통해 변화의 시작을 맞이한다.


몬스터는 자신과 같은 존재를 창조해달라고 빅터에게 요청하지만, 빅터는 이를 거절한다. 몬스터의 내면에 있던 고통이 극에 달하면서 그는 복수의 길로 접어들고, 빅터의 고향인 섬에서 해악을 일으킨다. 같은 시기, 클라라는 인간의 의식을 디지털 형태로 전환하여 무한한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고, 이 비밀 연구가 드러나면서 사태는 더욱 복잡해진다.

섬에서 벌어진 몬스터와 빅터의 마지막 대결은 비극적인 결말을 초래한다. 몬스터는 존재의 의미를 찾지 못한 채 홀로 남겨지고, 빅터는 기술의 한계와 인간의 오만함에 대한 교훈을 남기며 사망한다. 이러한 비극적인 결말을 목격한 클라라는 기술과 윤리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는다. 그녀는 빅터의 연구를 기반으로 인류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기술을 이끌겠다는 새로운 결심을 한다. 시간이 흐르고 클라라의 연구로 탄생한 새로운 생명체는 몬스터에게 인간과는 다른 새로운 관계와 소통의 가능성을 보여주며, 몬스터는 외롭지 않다는 희망을 발견한다. 이야기는 몬스터, 클라라, 그리고 새로운 생명체가 함께 있는 장면으로 마무리된다.

작품의 기대 효과

이 작품은 독자들에게 기술 발전의 긍정적인 면과 함께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철학적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게 만들 것이다. 또한, 인간의 존재 의미와 자아 정체성에 대한 묵직한 질문을 던지며, 인간과 인공 지능 간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기술과 인간성 사이의 조화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독자들은 더 넓은 관점에서 자신과 주변 세계를 바라보는 계기를 갖게 될 것이다.

스토리보드(Storyboard)

Cut	Picture	Caption
1		<p>새로운 시대의 시작 (영화 시작 ~ 5분)</p> <p>2045년, 인간과 기계가 혼합된 새로운 시대의 개막과 인류의 기술적 꿈이 펼쳐진다. 유명 과학자 빅터 프랑켄슈타인과 윤리학 교수 클라라 베일이 사망한 사람의 기억과 의식을 인공 지능과 결합하여 새로운 생명체를 창조하는 실험에 성공하는 장면을 보여준다.</p> <p>분위기: 미래적이면서 차가운 분위기</p> <p>카메라 이동 경로: 드론 샷으로 미래 도시 위를 날아가다 연구실 내부로 들어가며 줌인</p> <p>대사: (빅터 프랑켄슈타인) "우리는 새로운 장을 열었다. 생명을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다."</p>
2		<p>몬스터의 탄생과 자아 인식 (영화 5분 ~ 15분)</p> <p>창조된 생명체인 '몬스터'가 처음으로 거울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고, 자신이 인간과 다른 존재임을 깨닫는다. 이후 클라라와의 대화를 통해 변화의 시작을 맞이하는 과정을 보여준다.</p> <p>분위기: 호기심과 혼란이 뒤섞인 긴장감</p> <p>화면 전환 방법: 몬스터의 동공에 비치는 세상을 통해 몬스터가 보는 세계로 전환</p> <p>카메라 이동 경로: 몬스터가 거울을 바라보며 카메라가 천천히 몬스터의 얼굴로 줌인</p> <p>대사: (클라라 베일) "너는 매우 특별한 존재야. 너 자신을 알게 될 거야."</p>
3		<p>공개 토론과 복수의 시작 (영화 15분 ~ 25분)</p> <p>빅터와 클라라가 과학 기술의 윤리적 문제에 대해 공개 토론하는 장면과, 몬스터가 빅터에게 자신과 같은 존재를 창조해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한다. 몬스터의 복수심이 깊어진다.</p> <p>분위기: 긴장감과 대립</p> <p>화면 전환 방법: 대화 중 긴장감이 고조될 때마다 빠른 컷 전환</p> <p>카메라 이동 경로: 빅터와 클라라 사이를 오가며 대화의 중심을 따라 이동</p> <p>대사: (몬스터) "왜 나와 같은 존재를 만들어 주지 않는 거야?"</p>

4



비극적 대결과 깨달음 (영화 25분 ~ 35분)
몬스터와 빅터의 격리된 섬에서의 마지막 대결과 그로 인한 비극적인 결말이 펼쳐진다. 몬스터는 자신이 바라던 존재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빅터는 기술의 한계와 인간의 오만함에 대한 교훈을 남기며 사망한다.

분위기: 어둡고 비극적

화면 전환 방법: 전투 장면에서는 빠른 컷, 깨달음의 순간에서는 느린 패닝

카메라 이동 경로: 격렬한 대결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샷으로 시작해, 빅터와 몬스터 얼굴 클로즈업으로 전환

대사: (빅터) "우리의 오만함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다."

5



새로운 시작과 희망 (영화 35분 ~ 40분)

클라라의 비밀 연구와 새로운 생명체의 탄생이 드러나며, 몬스터가 이 새로운 존재와 교류하며 외롭지 않다는 희망을 발견하는 장면으로 끝맺는다. 클라라는 기술과 윤리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고, 인류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기술을 이끌겠다는 새로운 결심을 한다.

분위기: 따뜻하고 희망적

화면 전환 방법: 클라라의 연구실을 부드럽게 탐색하는 긴 패닝 샷

카메라 이동 경로: 새로운 생명체와 몬스터가 상호작용하는 장면을 다양한 각도에서 포착

대사: (클라라) "우리는 항상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 기술과 윤리의 균형이 그 시작이다."